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7



사진: 이형순- 플로리다의 해변에서 봄을 기다리며

"Hello, 꽃으로"

이홍빈(의대57)

삼월 어느날
훈풍이 불면
(이건) 얼른냉큼 내 차례요 냇것 하기로

사월되어 사방
꽃이 피면
(그건) 다 그대 차지요 그댓것이요

수선화
튤립
개나리

어느것 중
하나 나는
오래 피는 꽃으로

훈풍에
봄 햇살에
하품 비집던 꽃으로

춘곤 아지랭이
가지개 켤때
그때에 내밀던 꽃으로

해마다 철마다
지워지지 않는 맘
부지하는 그리움 그런 꽃으로

마주하구 피어도
그립구 외로운
그런 꽃으로

누구는
저만치 같이 오는가
어느새 떠나는가

그치만 다 늦게 가지개
오래가는 꽃으로
두고두고 얼마나 여겨기 남고픈건

이 해에도
이 철에도
같은 맘이요

(그러다 수더분
돌아선 뒷 모습 보이면
오래 남았다 따라나선 길이라 그렇게 말 하
기요.)

골든클럽 차기회장 추천 공지

2017년 3월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에서 골든클럽 제 6대 회장에 취임하고 2년 후 연임한 손경택 회장이 금년 2월 말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손경택 회장이 지난 2월 골든클럽 디렉토리 배포시 서한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는 전 현직 회장과 임호순 창립발기인이 협의하여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고 신년교례회에서 인준받는 절차로 진행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월 신년교례회 행사는 무망한 상황이라 부득이 간소한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클럽 관례에 따라, 오랜 기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신 홍종만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올해는 신년교례회에 같음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인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거나 다른 회원을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 회원은 손경택 회장에 Email로 연락 주시면, 검토하여 회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mail: ktson55@yahoo.com

환영합니다

윤종숙 동문, 약대66입학
(M) 516-428-3924
(E) yoonjs@optonline.net
Yoon Jong-sook
2 Birchwood Ct, #2F
Mineola, NY 11501



알립니다

이준희 회원의 부친 이정부님이 2021년 2월 14일에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의 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장례차 한국방문중인 이준희 회원이 돌아오면 위로의 말씀을 각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보시게, 이 허허한”

이흥빈(의대57)

우리
서루 부르는 소리
헬로우, (아무개 당신)

...

‘ 허 ...
이거 참 (당신 떠나네)
그거 참 (자네 가버리네) ... ‘ 이라는 건

같이 늙어 오래오랜 친구/옛 친구 돌아간
천국길 ...
망연히 명복 비는/지금 우리
맘속 아파하는 소리 | / 우리 우리를 우는
소리 |

그만/세월
병고에 세상/이 겨울 등지는 양반
우리 하는소리 | /요즘 허탈 무상한 소리 |

그닥 ‘한’ / 큰 인연
‘동문동학 동행’ 여깃/또 한고장 이웃해 우리
별난 인연
오천겁 하낫인연 그 ‘귀했던 우정’/감도는
소리 | 우리를 보는 소리 |

날렵 ‘애’받는 바쁜 손길/못 여인‘아랫’ 무
딘맘 그런 소리 |
느릿 느릿 그 농담/그 선한 미소가 새삼 내
게 닥아오는 소리 |
눈에 선한 이 양반/생각이 몸씨나는 한겨
울 내 맘소리 |

한때 우리 꼬셔모여 춤두 꼬박 꼬박/숫제 ‘
교과서 같’었던 소리 |
우리 젊게 우리젊잖게/탱고두 미치게 그때
그쩍 새벽밤참 신나던 소리 |
맛갈나게 골프두 또박 또박/매번 제 갈길
제거리 맨날우리 허 잘치네 하던 소리 |

어렵사리/힘겹 살아
살아 좋은세상/세모에 앉아 우리
가뜩이나 늙는 소리 | / 한 해가 아쉬운
소리 |

이거 참
허- 자네 떠나네/가 버리네
또 잃네/둘러 둘러 가구 없네

그거 참
떠나 떠나/돌아 들 가구마네
줄어 줄어/살아좋을 세상 사뭇 혼자남네

허- 이거 참 / 그거 참

망연히/우러러 명복 ...
먼 데 보는 허탈/그러구러 자네 돌아가네
너 나 없이 그러구 마네/하모 떠나구 마네

돌아 들 가네/가 버리네
떠나 들 가네/가구 없네
둘러 둘러/좋은 세상 자꾸 비어가네

...

허 - 그래 참
이 양반 더 좋은세상 저 세상 가네
자네 틀림없는 천국 가네

(암 잘 가시게) .

(As for man, the mortals,
His days are like grass;
He flourishes like a flower,
A flower of the field;
The wind blows over it and
And it is gone;
And its place remembers it
No more.
But ... (Psalms 103:15~)



(벗 이능석 박사 12/12/2020 별세)

사진으로 본 우리의 일상



(손갑수) 좋아하는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있으면서 YouTube, Netflix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전구) 백세주 안주삼아 순수 치마살(flank steak) 특등육으로 빛은 육회를 45년 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종석) Brick Township까지 한시간 걸려 내려가 Covid 접종을 마치고, 오버팩에서 산책하면서 건강 관리에 열중입니다.



(이홍빈) 작년 2월 Colorado 아들집 방문하고 Pandemic으로 9개월 동안 연금되었다가, 가까스로 귀가했습니다.



(임도혁) 좋아하는 4인 Bridge game은 부득이 중단하고, 2인 Chess game을 즐기고 있습니다.



(홍종만) 2박3일 일정으로 Adirondack High Peaks를 등반하며 설산을 즐겼습니다.



(곽선섭) 화상여행으로 하와이 Kailua Beach에서 이강홍 회원과의 Kayaking 장면을 Photoshop으로 합성하였습니다.



(김영만) 팬데믹으로 삼식이가 되어 아내를 돕고자 매일 아침식사로 과일을 준비합니다.

하이 태오!

홍지복(간호70)

하이 태오!
 달덩이 같은 얼굴에 방실 웃음을 지어 주네요.
 휴~~~
 그동안 두려워했던 첫 만남,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나
 설레던 마음이 그 방실거림에
 흰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네요.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이었던가,,,
 2019년 12월 막내딸이
 뉴욕에서 첫딸을,
 2020년 7월 오레곤에서
 큰아들이 첫아들을 출산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병원에 물리는 환자들,
 죽었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 제2차대전 중 사망자보다도
 더 많다는 소식에
 일상생활은 흔들리고,
 제한되고,
 중단되면서,
 오로지 코비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코비드로 죽을까 두려워서,
 걸렸는지도 모르는 코비드를
 남에게 전염시킬까 두려워서
 삶을 축소하고, 미루고, 피하고,
 포기하면서 살아온 시간으로
 그 귀한 손녀,
 손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기니 더욱 살고 싶었습니다.
 35년여 다니던 직장병원도
 코비드에 걸릴 가능성이 두려워서
 그만두고 싶어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코비드 예방접종 계획 제1순위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원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부작용도 없이 잘 받고,
 항체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오고,
 다시 코비드 검사에서
 음성으로 두 번 반복으로 나와,
 비행기를 타고 이곳 서부로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 가리개까지 하고
 비행기 탑승을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 아들 집에 와서는
 입고 온 옷은 차고에 걸어두고,
 목욕을 한 후 하룻밤을 자고 난 후,
 마스크를 쓰고
 손자가 있는 방에 가서 처음 만남을 했습니다.

하이 태오!
 내가 너의 할머니야.
 손을 내미는 저의 손을 잡고 방실거리는
 손자 태오는 가슴 가득 행복이었습니다.

살아 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가족이 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레곤 손자 태오



뉴욕 손녀와 함께

골든클럽 회보는 금년의 초점 series로 “노년의 습달”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series를 통해 골든클럽 회원들의 노년의 삶에 대한 통찰, 지혜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도입니다.

수년 전 은퇴 준비 차 금융설계사에게 financial projection을 해달라고 했더니 95세까지 계산을 해왔습니다. 참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comment했더니 자기 회사에서는 70세에 도달한 사람은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는 것이 표준이라 답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지면 노년의 길이는 그 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노년이 30년 가까이 라면 잘 살아야 할 motivation 그리고 현실적 문제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보면 골든클럽은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라는 구호가 얘기하듯이 “노년의 삶을 습달”하자는 모임이고 20여년이나 잘사는 것을 실험해 왔으니 경험, 지혜, 통찰이 많이 축적되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 축적된 지식을 같이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방대하고 복잡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NCOA (National Council on Aging)이라는 노년 문제 전문 비영리 단체에서는 ‘노년의 삶을 습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자그마한 발전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합니다.

* **자기 성찰과 감사:** 매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찾는 습관을 형성

- * **건강과 웰빙:**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pattern을 구축하고 유지
- * **재정과 삶의 계획:** 앞으로의 여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재력과 계획의 준비
- * **인간 관계와 공동체:** 가족, 친구, 이웃들과 서로 아끼고, 돕는 생활로 사회 안에서의 위치가 단단하고 enriching한 삶을 영위
- * **배움과 창조:** 새로운 지식, 기술을 끈임없이 습득하여 급진하는 사회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며 항상 무엇이고 창조하려는 의지를 유지
- * **삶의 목표와 유산:** 노년이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하고 충만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It doesn’t last forever.”입니다. “왜 살고, 무엇을 남기나?”는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남들은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각 과제마다 필요한 지식, 경험이 방대해서 이를 잘 이해하고 진척을 보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골든클럽 회보에서의 시도는 아주 겸손한 목표로, 회원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각 과제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분에게 출발점을 마련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 잠정 계획은 약 3개월에 한 번씩 위의 topic 중 하나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topic으로 영상 간담회를 열어 presentation 과 질의응답을 가지겠습니다. 연사는 저희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수(長壽) - Supercentenarian

두 달 전 같은 성당을 다니시던 분이 104세로 귀천하셨다. Covid-19 전만 해도 주일이면 따님과 같이 지팡이 하나만 의존하고 미사에 나왔으니 상당히 정정하신 분이였다. 주변에 구순이 넘는 분들은 꽤 자주 본다. 이제는 장수라 하면 100세는 되어야 반열에 드는 것 같다. 궁금해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다.

UN 통계에 의하면 100세 (centenarian) 이상의 인구는 573,000명으로 예측하고 이는 인구 15,000명당 1인 꼴이다. 이들의 인구 증가는 매 10년 두 배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다고 한다. 110세 이상이면 super centenarian이라 불린다. Centenarian 중 1,200명 중 1분 정도로 super centenarian 반열에 오르며 현재는 약 400명이 있다고 한다. 115세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현재 세계 전체로 6명 밖에 없다. 현재로는 120세를 넘는 분은 한 분도 없다.

나라별로 centenarian 이상의 인구는 미국이 100,000명 정도로 가장 높다. 인구 비율로 보면 일본이 가장 높아 1,600명 중 1분 (총 80,000명)이 있다. 한국(남한)도 세계 2위 정도로 2400:1의 비율이고 전체 숫자는 약 22,000명이다. 북한은 통계가 없다. 얼른 주변에서 봐도 확연하게 여자 백세 이상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단연코 많아 대비가 7:1이고 증가율의 비는 12:1이라 한다. 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COVID-19와

중에 centenarian 인구도 충격을 많이 받아 인구가 상당히 줄었다 예측되지만, 자세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은 프랑스의 Jeanne Louise Calment라는 할머니로 1997년 122살 164일로 소천하셨다. 남편보다는 50년을, 외동딸보다는 63년을 더 살았다. 건장하고 활발한 삶을 살았는데 담배를 좋아해 117살까지 피웠다 한다. Calment 할머니는 누가 계산을 잘못해서 한 거래의 수혜자였다. 90세 되는 해에 48세 된 변호사가 그의 아파트가 맘에 들어 그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매달 2,500프랑 (약 \$500)을 받기로 했다. 30년 동안 변호사는 무려 900,000프랑을 지불하고 먼저 사망하고 말았다 한다. 남자로 가장 장수한 분은 일본의 기무라 지로에몬이라는 분으로 2013년에 116살 54일로 소천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한파가 Texas까지 내려가 천여만의 인구가 전기, 천연 가스 공급이 끊겨 추위에 온 식구가 heating도 못하고 떨고 지내고 있다. 수도관도 얼어 터져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 곳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지구 온난화와 이에 의한 기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관한 논란이 온 세상을 덮어 가고 있는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영향이 관찰되고 있고 더 얼마만큼 증폭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너무 광대하고 복잡한 탓인지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회보에서는 3월과 4월호에 이 문제를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편으로 나누어 소개하려 한다. 1편은 온난화의 원인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3월호에, 그리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온난화의 완화 대책은 4월호에 다루려 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 이산화탄소(CO₂)의 영향

오순문(사대68)

지구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태양광을 통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과 지구가 적외선을 통해 우주로 방사하는 열량의 차이로 결정된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는 열순환 또는 열축적에 의해 좌우된다.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은하계를 도는 태양의 공전 궤도(황도),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 태양과의 거리, 지구를 향한 빛의 입사각도,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태양 흑점의 활성도 등이 있다.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 방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대기중 이산화탄소(CO₂)나 메탄가스(CH₄) 같은 온실가스의 조성, 적도와 극 사이를 왕래하면서 열을 분산시키는 대양의 해류작용 등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변수가 되어 장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들이 온난화의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오는 태양 열은 흡수하지 않으나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복사열의 방출을 막아 이불역할을 함으로서 지구가 더워지고, 북극, 남극, Greenland, Iceland 등의 얼음을 녹이면서 수면상승과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기는 주로 질소(78%)와 산소(21%), 그리고 아르곤(0.9%), 이산화탄소(0.04%)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의 온도는 섭씨 15도 전후로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00년간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석화된 연료(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었고,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0ppm에서 415ppm으로, 기온은 섭씨 1.2도 상승했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화산으로부터 분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1000배를 넘었고, 강력한 태양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줬다. 그리고 원시식물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해 생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억년전 공룡의 시대에는 지금보다 10-15도 높은 기온과 이산화탄소는 2000ppm 정도의 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의 농도는 280ppm에서 415ppm으로, 기온은 섭씨 1.2도 상승했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화산으로부터 분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1000배를 넘었고, 강력한 태양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줬다. 그리고 원시식물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해 생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억년전 공룡의 시대에는 지금보다 10-15도 높은 기온과 이산화탄소는 2000ppm 정도의 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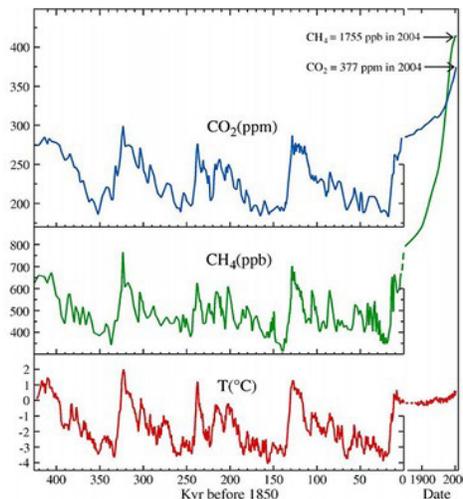


Fig. 1 Vostok Drilling Project에서 40만년 동안 측정된 a) 이산화탄소(ppm), b) 메탄가스(ppb), c) 대기의 온도변화

1957년 구소련이 남극에 세운 Vostok 기지에서는 얼음 속 2마일이 넘는 빙핵에서 40만년 전의 얼음기동들을 채취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로부터 시간대별 기후변화를

알아내 듯 과학자들은 시간대별로 쌓인 얼음층으로부터 수증기(H₂O)와 이산화탄소(CO₂)를 채취해 지난 40만년 동안의 대기 온도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었다. Fig. 1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대기의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다른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진 메탄가스(CH₄) 농도도 대기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메탄가스(2ppm)는 이산화탄소(400ppm)보다 양은 적더라도 20배 정도 더 효율적인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체로 지금도 툰드라 늪지대와 바닷물에서는 많은 양이 분출되고 있다.

대기중에 400ppm넘게 존재하는 이산화탄소(CO₂)의 탄소(C)는 자연계에서 형태를 바꿔가며 순환하는데 약 20%의 탄소(C)는 매년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고, 40% 정도는 생물권으로 재순환되고 40%는 대기중에 남는다. 바닷물에는 대기중 탄소의 약 50배 정도가 녹아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나오고 있다. 수억 년 전에는 화산이 터지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 바닷물에 녹으면서 침전되어 석회석(CaCO₃)이 되었다. 전체 탄소(C)의 99.9%는 석회석, 대리석, 석탄과 같이 지하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지구는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했었기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량과 그에 따른 온도상승이 화석연료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860년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90ppm에서 현재의 420ppm으로, 대기 온도는 1.2도 높아졌는데, 증가된 이산화탄소(130ppm)는 석탄과 석유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 탄소14의 방사선 동위원소 추적적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수억 년 동안 이어져오던 탄소 순환과정에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개입하게 된 셈이 되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온실 가스의 증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CO₂ 농도의 증가임에 세계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 및 천연 가스)를 추출하고 태우는 인간 활동이 주원인이다 (Fig. 2a, 2b). 덧붙여 삼림 벌채 및 산업 공정에서 CO₂가 발생하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및 비료의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 공정 중 방출되는 CO₂도 포함된

다. 생산 기업 관점에서 보면 주원인은 전기 및 광열 (25%), 농업 및 임업 (24%), 산업 및 제조 (21%), 운송 (14%), 건물 관리 (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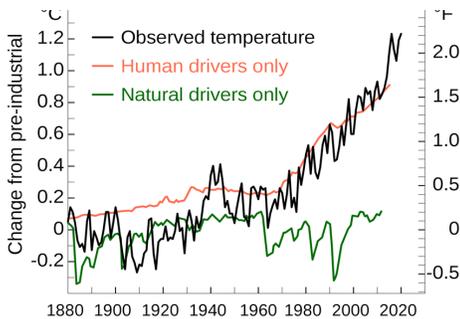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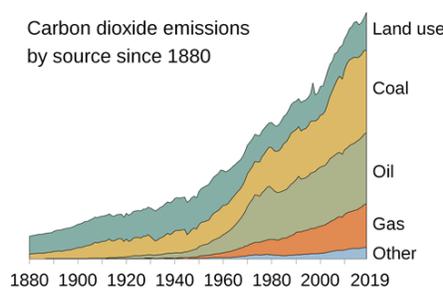


Fig. 2a 산업화 이전 온도 대비 NASA 관측 온도. 산업화 후 온도 상승의 주원인은 인간 활동이며 자연현상은 가변도에만 기여.

지구 온난화가 인류가 만든 재앙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만약 온난화가 자연 현상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온난화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치겠다고 서약하는 모양이다.

Fig. 2b 1880년 이후 요인별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온난화가 위기로 인식되기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었지만 아직도 다른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2만년 전부터 지구는 10도 정도 따뜻해졌고, 인류가 화석연료를 쓰기 훨씬 전에서부터 이미 더워지는 순환기에 들어서 있었으니까 온난화가 꼭 최근의 화석연료 때문이겠냐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 건

지,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건지 인과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1997년 교토의정서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가시화되었다. 여섯 가지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육불화황)를 규정하고 2008-2012년도에는 1990년보다 배출량을 5%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파리 기후협약(2020년)에서는 42개국이 1990년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기술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방법 또는 채취해 깊은 바닷속이나 폐광으로 주입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탄소배출권, 탄소세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월 회보의 Part II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

홍종만(공대64)

고산 등반에 참여하다 보면, 10,000-14,000' (3~4,000미터) 능선에서 내려다보는 확 트인 전망도 일품이지만, 중간중간 통과하게 되는 만년설 지대 특히 빙하 지역(glacier)을 우회할 때의 짜릿한 감흥이 잊지 못할 추억이며, 혹시 Crevasse(빙하의 갈라진 틈새)의 엄청난 얼음층을 내려다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눈이 압력을 받아 조금씩 blue-ice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추하게 된다. 고대 빙하시대가 지나고 근세에는 하류로 조금씩 이동하며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수량과 새로운 눈으로 형성되는 빙하 윗부분이 균형이 맞아 고산과 빙하 지역은 공존하는 개념이었으나, 근래에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점점 없어 지면서 자리했던 계곡이 불모지 너털지대로 변해가는 황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실감한다.

남미의 페루 고산 지역은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은 건조하여, 겨울에 내린 많은 눈이 빙하에 쌓이고, 여름에는 빙하가 조금씩



산정호수로 흘러내려 농사 및 목축 관개 사업을 위한 수로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온난화로 빙하의 저수 기능이 훼손되고 겨울에 강수량이 늘어나면 산정호수들의 담수능력을 초과하여 여름 농사와 목축이 어렵게 되고 현지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Alps 지역의 광활한 빙하지대도 일부 돌바닥을 들어내면서 황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 중심에 위치하며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 Alps 지역의 빙하가 서서히 사라진다면 Emerald 빛 맑은 호수도 줄어들고 멋진 설산의 이미지는 퇴색할 것 같다.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자연보호는 앞에 다가온 우리의 문제들이다.

회원 명단 (109명 / 2021-02-16)

강교숙	김영덕	성기로	우규환	임도혁	최준희
강에드	김영만	손갑수	유무영	임호순	최진영
계동휘	김우영	손경택	윤종숙	장동만/	최철용
곽상준	김익성	손대홍/	윤현남	고애자	최학주
곽선섭	김인형	남종현	이강홍	정도현	추재욱
곽승용	김재경	손옥화	이국진	정수일	한영수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 준	조달훈/	한용오
권정덕/	김종욱	송용길/	이대연	조승자	한태진
홍선대	김창수	송현자	이대영	정해민	허용웅
권영대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조상근	홍사만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수호	주상선	홍정표
김광수	김현중	이정자	이용대	주재양	홍지복
김광현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진봉일	홍종만/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전병수/	홍예경
김문경	박기환	오 성	이종석	천종화	
김문연	박준구/	오순문	이준행	최구진	
김병순	최속희	오용호	이준희	최병우	
김상만	박희병	오유섭	이행순	최수용	
	배상규	오인석	이흥빈	최순채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2-16)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16일(수)	Picnic or Pizza Party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1일(수)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8일(수)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1일(수)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일(수)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41명 / \$4,100 / 2021-02-16)

강에드	최속희	양인회	이종석	한용오
강교숙	박희병	오용호	이행순	홍선경
계동휘	성기로	오유섭	이흥빈	홍지복
곽상준	손갑수	우규환	임호순	홍종만
김동건	손경택	유무영	정수일	홍예경
김상만	손옥화	윤종숙	정해민	
김한중	송학린	이대연	천종화	
노용면	신진식/	이용대	최준희	
박준구/	이정자	이종대	최철용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14명 / \$6,800 / 2021-02-16)

김한중300	양인회200	이흥빈100
성기로300	오용호100	임호순300
손경택1,000	우규환200	정해민500
송학린1,100	이준행2,000	최철용300
신진식300	이행순2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3명 / \$600 / 2021-02-16)

남종현
김한중
윤종숙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영덕 (공대53) 추재욱 (의대57)
이대영 (문리64) 한태진 (의대58)
이준행 (공대48)
임도혁 (공대59)
조상근 (법대69)
주재양 (공대51)
최준희 (의대58)
최진영 (문리55)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